

평신학보

◆ 기획취재 -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 발족

‘인간의 삶’을 노래하라!



꽃다운 어린나이에 정신대로 끌려가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고 종전 후 찾아든 고향에서 조차 감추고 싶은 치욕스런 과거사로 치부되어 음지에서 살아야 했던 위안부 1세대들.

피해자이면서도 혹시 누가 알까 전전긍긍해야 했던 그네들의 반평생 고통은 그렇게 세대를 거듭할수록 가슴에 한으로 맺히

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명백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위토금 형식의 국민기금으로 문제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

이에 최근 전쟁에서의 성폭력이나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단죄를 목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전범을 법정에 세운다. 2000년 12월경 개최되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학생법정'이 그것. 도쿄에서 중국·대만·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이 모인 가운데 7일 동안 재판이 진행될 이번 법정은 시민법정으로 실제로 법적 규정력이 없으며 증인들의 참가 여부도 강제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나마 전범을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 여성 성노예 범죄를 처벌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2000년 본법정에 앞서 위안부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국내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과거사 청산의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 의의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학생법정)' 준비위원회가 지난 29일 발족식을 갖고 출항에 나선 것이다.

이번 학생법정을 준비하고 있는 민승혜 준비위원장은 '한일역사청산의 과제가 중심이지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여성의 고통과 억압을 밝히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쟁종식과 함께 끝난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 코소보사태에서도 같이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 전사 때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은 되풀이되고 있다'며 '아시아 각국 젊은이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대적 의의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여성인권 운동의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한'이 학생법정의 발족취지라고 밝혔다.

학생법정은 시민법정에 앞서 내년 4월경 한국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모의재판형식으로 구성되며 평범한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전문가적 해석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본법정과 달리 여성인권문제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법정에서는 전쟁시 유린당한 여성의 인권과 성적 폭압의 피해자였던 위안부들이 종전 후 더욱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배경을 사회전체의 가부장제에서 찾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 내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베트남전쟁 참전 국군들의 라이파이한 문제도 공론화하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이중적 속성을 지닌 한국정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도 모색할 계획이다.

학생법정은 오는 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제안으로 전국의 대학 총여학생회와 여성위원회를 주축으로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지난 8월 25, 26일 '전쟁과 여성인권'을 주제로 한 일 학생 공동 워크숍 개최하며 학생법정 발족을 위한 준비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내년에 열릴 학생법정을 일본대학생들과의 공동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학술, 법률, 기획, 사무 4개 분과로 조직되어 있으나 각 분과마다의 위상이나 활동상에 있어서 구체화된 부분은 미흡하다. 11월까지 분과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며 대동제를 준비하는 학교의 경우 이와 관련된 모의법정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사회안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승혜 준비위원장은 '발족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 초반에 발족식의 의미를 단순한 자기만족적 행사로 생각하다 급작스레 크게 기획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며 '2000년 학생법정개최까지 3차에 걸친 마로니에 거리산전전 등을 통해 학생법정의 의미를 알려내며 정대협 홈페이지 내 학생법정 홈페이지 마련하여 여론화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법정은 앞으로 법정 구성을 위한 시나리오 완료와 법률분과 자문위원과의 공청회를 내년 1월중 개최하며 3월 중 위안부 할머니 증언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준비할 계획이다.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소련붕괴 이후 탈냉전시대의 터널을 지나며 결국 자본의 승리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다원화된 국제사회에서 드디어 민주주의가 꽃피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지금,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소수자들에 대한 크고 작은 인권유린의 상황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반면, 종전이후 빈인권적 권력에 대한 평가는 허술하게 진행돼 또 다른 인권유린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인권은 권력에 비례하는 세상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최되는 학생법정은 한-일관계의 역사청산의 개념으로 위안부문제를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절대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억압받는 민중들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위안부, 라이파이안, 여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권력억압과 인권유린이란 대의 명제 아래 설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이며 그 가운데 펼쳐지는 다양한 고민 속에서 역사의 진보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김주애기자